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성령 | 이남규 루카 레드케임 기법 직경 24cm 1991년 대전교구 운산성당

**입당송** |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 이사 40,1-5.9-11

**화답송** | 시편 85(84),9 그리고 10.11-12.13-14(◎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 2베드 3,8-14

**복음환호송** |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 마르 1,1-8

**영성체송** |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김시몬 시몬 신부 | 사회사목국 노동사목위원회

##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대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고,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인간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일을 못하는 것이 사회 구조의 문제임에도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전가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더 큰 문제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줄어든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편이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상대가 일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밀려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엉뚱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도 더 많이 버는 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를 위한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바랐던 것입니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을 듯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웃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지켜보기보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기 바라십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일하는데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 앞에서 살짝만 속도를 내도 뒤에서는 뛰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공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르 1,8)

스테인드글라스는 공간을 비추는 빛을 설계합니다. 보이지 않던 빛은 외적으로 보이는 스테인드글라스의 형태를 통과하여, 그 아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물들입니다. 주님께 세례를 받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례는 외적인 예식이지만, 세례 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 가치관과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작품  
설명

## 돌아온 아이들

아동 양육 시설인 꿈나무마을로 오기 전, 저는 청년들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시설 책임자로 경기도 가평 현리마을에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시급했던 일은 그 시설을 잘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정해진 일정에 맞춰 연수 교육이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강자들에게 숙소와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 교육 시설의 대관 업무도 제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저희 수도원 공동체의 손님방을 관리하면서 '내가 민박집을 운영해도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숙박 시설 운영자가 된 것에 신기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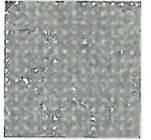
하지만 전 세계가 기억하듯이 2020년 정초부터 코로나 19 팬데믹이 무서운 속도로 세상을 덮쳤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저는 가게 문 열자마자 휴업이라는 난처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미룬 채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으나 그것은 허황된 기대였습니다. 백신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막연히 더 기다릴 수 없었고, 결국 2020년 여름방학부터는 온라인으로 연수 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비대면 방식의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한 해를 넘기고 2021년 저는 현재의 사목 현장인 꿈나무마을로 파견됐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한창이었으나 대규모 양육 시설에서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했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오는 사람 없이 고요 속에서 보냈던 가평의 생활과는 달리 분위기에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저희 예수회원들이 오기 전 이곳은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에서 시설을 위임받아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빼고는 아동들 대부분이 세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이곳에서 퇴소하게 되면 성당에

다니지 않으려 합니다.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고 자라면서 충분히 미사 참례 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에서 벗어난 올해 부활대축일에 감격했던 것은 퇴소한 청년들 중 몇몇이 꿈나무마을에 찾아와서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듯 '주님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대림 기간에도 청년들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아주 소박하게도 이 묵은 냉담자들이 누군가의 강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철이 들어 스스로 자기의 신앙에 대해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 년 중 최소한 부활과 성탄만큼은 설과 한가위에 모이듯 꿈나무마을 성당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동네 성당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일도 머지않겠죠. 퇴소한 청년들은 예전 자신들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미사를 봉헌하게 하던 그때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종종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신앙을 밀어냈으나 이제는 풀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립준비청년들의 마음이 풀리고 자라고 있습니다.

박종인 사도요한 신부 | 예수회원, 꿈나무마을 공동체



한껏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대림성탄

기대림의 기쁨은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2009년 11월 28일 제1서령기도 중  
의미가 없다면 기다림은 권할 수 없지만 시간에 의미가 부여되고  
매 순간 구체적인 윤희한 것을 인식하게 되면 달라진다고 설명하시며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 보편 사제직(3): 어떻게 수행할까? 직무 사제직과는 무슨 관계?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의회가 말한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로마 12,1 참조)”라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감 탓일 수도 있지만, 뭔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니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현장에서 평신도의 보편 사제직 수행을 다루는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설명은 평신도이든, 수도자이든, 사제이든, 각자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우된 사람들로서 놀랍게도 언제나 그들 안에서 성령의 더욱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 그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 생활, 가정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은,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고 더욱이 삶의 괴로움을 곳곳이 견뎌 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이 되고(1베드 2,5 참조) [...]”(교회헌장 3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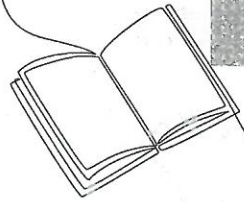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보편 사제직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신의 휴식’까지도 말이지요. 그러니 죄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삶에서 보편 사제직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편 사제직을 ‘실존적 사제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을 영적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바치는 것들 자체가 아니라 바로 성령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영적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편 사제직의 수행과 직무 사제직의 수행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둘이 서로를 ‘향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호혜적 관계’인데요, 보편 사제직이 일상의 삶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직무 사제직은 하느님 백성이 보편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말씀의 선포와 성사의 거행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편 사제직 또한 직무 사제직 수행에 봉사합니다. 아이들은 가정과 본당에서 주님의 기도를 비롯하여 기도를 배우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익힙니다. 사제 성소를 받은 젊은이는 신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신앙의 삶을 배우고, 신자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편 사제직을 열심히 수행하는 신자들 속에 있을 때 사제들은 자신의 직무를 더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신자들 속에 있을 때, 물론 그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지만, 직무 수행에 소홀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 사제직의 수행과 보편 사제직의 수행은 서로를 향해 있고,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하느님 백성의 활동은 성체성사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찬의 희생제물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일상의 삶에서 바친 영적 희생제물을 ‘사제와 함께, 사제를 통하여’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성찬의 희생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미사 때 직무 사제직과 보편 사제직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러나 ‘함께’ 사제적 백성인 교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 바오로의 항소와 마지막 변론 (25,1-26,32)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사도행전은 총 세 차례 바오로의 회심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9,1-22; 22,3-21; 26,2-23) 이번 회심 설교는 기존 두 번의 회심 이야기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고, 아그리파 임금 앞에서 변론하는 바오로의 모습은 헤로데 안티파스 앞에서 심문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루카 23,6-12 참조)

바오로의 감옥 생활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 한 총독 펠릭스 때문에 2년간 지속됩니다. 그러나 가혹한 수감 생활을 하기보다는 자유로운 구금 상태로 지냅니다. 바오로의 공판은 펠릭스 다음 총독인 페스투스가 다시 이어 나갑니다. 페스투스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공판을 열고자 합니다. 이때 바오로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여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재심을 요구하기 위해서 또는 부당한 재판을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판 초기부터 로마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항소는 바오로의 여정이 어디서 마무리가 될지 예측하게 해줍니다. 이제 페스투스는 바오로를 유대인 임금인 아그리파스 앞에 세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수난의 길을 걸어가기 전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심문을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루카 21,12-13)라는 예수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이처럼 바오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마지막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오로의 마지막 변론은 9,1-22과 22,3-21에서 밝힌 자신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교는 회심 순간의 구체적인 묘사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구약 예언자들의 합법적인 계승자일 뿐만 아니라, 열두 사도 대열에 들어서게 된 이방인의 사도임을 부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모세와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와 예언자를 믿느냐는 질문 등 유대인에게 민감한 주제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또한 바오로의 설교는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분명 유대교의 메시아는 제왕적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메시아는 제왕적 메시아가 아닌 고난 받는, 즉 속죄를 위한 희생과 섬김의 메시아입니다. 루카는 이런 뚜렷한 구분을 통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다르고 각각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왕적 메시아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한다거나 세상의 제사장이 된다는 등의 지배욕을 부추기는 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말들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조건 없이 섬김과 겸손, 희생의 삶을 드러내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입니다.

# 2

## 성전환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지난 시간에는 성전환자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세례성사와 혼인성사 참여의 문제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부의 문헌에 나온 ‘성전환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실, 세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에 합당한 준비와 품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문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성전환자가 세례의 대부모가 될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문헌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성전환자를 대부나 대모로 세우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혼란이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대리모나 입양 등으로 자녀를 얻는 두 명의 동성애자가 아이의 세례를 청한다면 그들을 부모로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실 유아세례는 당사자의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아이의 세례를 청한다면 그들의 신앙과 아이가 가톨릭 종교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헌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회의 법규를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 희망이 전혀 없다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세례를 연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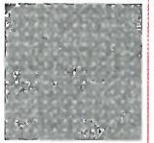
한다.”(교회법 제868조 2항)

사목자는 자기 아기들의 세례를 청하는 그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 아기가 가톨릭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문헌은 동거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대부나 대모는 자신들의 신앙에 부합하는 태도와 삶을 지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동거가 단순한 공동 거주가 아닌, 지속적이고 분명하게 배우자 같은 관계로서 그 관계가 공동체에 잘 알려진 경우를 구분하면서 모든 경우 사목자의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문헌은 성전환자나 동성애자라도 혼인성사의 증인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성사는 어떤 소속감이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할 때 완성되며 가톨릭교회는 믿는 이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감독\_권민표, 서한솔

이란을 대표하는 거장 아스가르 파르하디 감독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는 영화 상영이 끝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말로 자신의 작품들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즈 팀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s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문장을 통해 구기 종목 중에서 드물게 시간제한이 없는 야구가 지닌 매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끝’이라는 단어가 품은 ‘종(終)’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끝에 대한 희망을 품곤 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에 권민표, 서한솔 감독이 함께 연출한 영화 <종착역>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영화는 중학생으로서 첫 방학을 앞둔 시연(설시연 분), 소정(박소정 분), 연우(배연우 분), 송희(한송희 분)의 모습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새로 전학 온 시연은 학교의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고, 여기서 만난 소정, 연우, 송희와 친구가 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네 소녀는 동아리 선생님께서 주신 ‘세상의 끝’을 찍어오라는 방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세상의 끝을 어디로 설정할지 고민하다가 지하철

영화 '종착역'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s ain't over till it's over)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1호선의 종착역인 신창역으로 가서 사진을 찍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물리적 공간의 끝에 도달하기 위한 소녀들의 여정이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지점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창역에 도착한 네 소녀는 의구심에 빠집니다. 종착역인데도 신창역에 놓인 선로는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창역이 1호선의 종착역임과 동시에 전복까지 가는 장항선이 이어진 곳이라는 사실을 네 소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무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끊어진 선로를 보기 위해서는 옛 신창역으로 가야 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고, 이들은 폐허로 남은 옛 신창역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세상의 끝을 사진으로 온전히 담아내고자 하는 네 소녀의 의지는, 자신들이 의식하는 세상의 경계를 더 넓혀가는 과정이 되어줍니다. 예컨대 극 중 소정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왔던 길을 함께 되돌아가 주는 친구들의 모습, 고단한 여정 중에 길고양이에게 먹이와 물을 줄 여유를 보이는 모습, 시간이 늦어져 마을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결정하는 모습, 각자의 조부모를 향한 추억을 공유하며 언젠

가 자신들이 맞게 될 노년을 상상하는 모습 등을 통해서 영화는 네 소녀가 세상의 끝을 찾아 나선 여정의 폭을 더욱 넓혀준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스가르 파르하디 감독의 말처럼, 영화 <종착역>은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관객은 네 소녀가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혼이 났는지, 방학 숙제를 선생님에게 제대로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사안 이 아님을 영화 속 네 소녀가 어느 여름 날에 선보인 여정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영화 속 네 소녀가 보인 세상의 끝을 향한 여정은, 한 해의 종착점에 다다르며 아쉬워하기 바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더불어 우리가 해마다 맞는 한 해의 마무리를 비롯한 여러 종착의 순간들과 지점들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자 우리네 삶의 실존적인 경계가 어제보다 더 확장되는 시점임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12월 10일)은 대림 제2주일로 제42회 '인권 주 일'이며 '사회 교리 주간(12월 10일~16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건설업체 정규 등록 신청 안내**

정규 등록 분야: 신축, 리모델링  
 등록 신청 기간: 11월 20일~12월 15일  
 자격 및 서류 제출, 심사, 등록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https://aos.catholic.or.kr>)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또는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https://www.catholic.or.kr>) 하단 '교구'란의 '교구 정규등록건설업체' 참조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네 번째 구상(세레자 요한) 시인 기림 미사**

구상(세레자 요한, 1919~2004) 시인은 열다섯에 사제가 될 것을 다짐하며 신학교에 들어갔던 적이 있을 만큼 한평생 마음 가난한 구도자의 삶을 살고, 현실에서부터 영원을 살 고자 노래한 '성자 시인'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시 '오늘' 중에서)는 시구와 같이 바쁜 세밀을 살 아가는 가운데서도 영원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 는 많은 분들을 시인을 기리는 미사에 초대합니다.

때, 곳: 12월 16일(토)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집전: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이기우 신부	흑석동 본당(사회사목담당)	성사전담사제
정성환 신부	제4 종로지구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파견
윤용렬 신부	해외유학	등촌1동 본당 부주임

※ 제4 종로지구장 임무는 2024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 때까지 제4 성북지구장 조해봉 신부가 대행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7년 12월 12일 방영석 요셉 신부(29세)
- 1953년 12월 17일 이선용 바오로 신부(56세)
- 1994년 12월 14일 구전희 바르톨로메오 신부(73세)

**교구청 알림**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12월18일(월)까지 교구 법원 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경필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12월12일 매월 두번째(화) 13시30분~16시30분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24년도 총구역장 연수**

대상: 남성총구역장, 여성총구역장  
 때: 2024년 1월6일(토) 10시30분~15시  
 곳: 주교좌 명동대성당 / 회비: 2만원(12월29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4년 사순부활 묵상곡을 위한 성음악 합창 심포지엄**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본당, 청년, 장년 등)  
 때: 2024년 1월6일(토)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중림동)  
 접수 및 등록: 12월11일(월)~22일(금)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http://www.casm.co.kr)) 참조  
 문의: 02)393-2213~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

**학교사목부 교육봉사자 모집**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인성교육'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견진성사 받은 신자, 만 20세~60세 해당자  
 곳: 가톨릭청소년회관(역삼동)  
 교육일시: 2024년 1월3일~5일, 1월10일~12일  
 접수: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11월27일~12월29일  
 회비: 10만원 / 문의: 02)553-7321(일,월 휴무) 자체 한 문의는 전화·홈페이지([www.kycc.or.kr](http://www.kycc.or.kr)) 확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북녘 본당’ 미사)**

때, 곳: 1396차 미사 12월1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분당: 평양교구 성천 본당, 영유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제57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자구를 위한 미사)**

때, 곳: 12월21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주제 및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슬픔 속 희망찾기’ 12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12월16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죽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집전: 김수규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함뎀자살예방센터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성인 개인전: 1전시실  
 이종석 개인전: 2전시실  
 윤영선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13일(수)~21일(목)

**발달장애인 첫영성체 교육 담당자 연수**

때, 곳: 2024년 1월6일(토) 10시~17시, 영성센터(명동)  
 회비: 5만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이메일([cafema@cafema.or.kr](mailto:cafema@cafema.or.kr)) 접수(양식-홈페이지)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사목국 직장사목팀**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1) 직장사목팀 설립 30주년 기념미사  
 때, 곳: 12월14일(목) 20시, 명동대성당  
 주제: 정순택 대주교  
 2) 30주년 기념 AESTUS 직장인성가단 연주회  
 때, 곳: 12월15일(금) 20시, 명동대성당

**한국교회사연구소 4차 무료특강 안내**

주제: 역사소설 '불멸의 노래' 속에 나타난 조선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신앙 이야기  
 때: 12월13일(수) 18시30분~19시50분  
 곳: 종로성당 강당(전철 1호선·3호선 종로3가역 11번출구 전방 300m) / 강사: 류은경(소설가)  
 기타: 작가 사인한 저서 현장 구매 가능합니다  
 문의: 010-3348-1901 이충자 간사

**2024 가톨릭중등교육자 피정**

주제: 이나시오 영신수련법을 통한 묵상기도  
 대상: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교사, 교직원(가톨릭 신자)  
 때: 2024년 1월18일(목)~20일(토) 2박3일  
 곳: 성 바오로 피정의 집(시흥)  
 강: 김동일 신부(예수회)  
 인원: 40명(선착순) 12월1일부터 접수  
 신청: 구글 온라인 신청서  
 문의: 02)566-5456 학교사목부 사무실





**선교아카데미 제13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 회비: 95만원(식대 포함)  
 때, 곳: 2024년 3월7일~10월17일 매주(목), 한국의방선교회(주최) 본부(성북동) / 문의: 02)3673-2528

**바로로달 헤화나무 2024년 1월 아카데미**

‘하느님과 인간의 서사를 만든 성경 인물들’  
 강사: 주원준 박사(한남성서연구원)  
 때, 곳: 1월 매주(금) 15시~17시(4회), 헤화나무 지하 강연장 / 문의(접수): 010-9759-0882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024년 2월16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모집**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정기 단원 모집**

때, 곳: 2024년 1월19일(금),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오곡: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2279-0255

**민족화해위원회 유니타스 성가대 및 기도봉사자 모집**

1) 유니타스 성가대 단원 모집  
 대상: 각 파트 별(알토 대환영) / 010-5283-5680 단장  
 2) 평화나눔기도 봉사자 모집 / 문의: 02)753-0815

**미사**

**쉬는 교우(젊은이들)위한 월레미사**

때, 곳: 매일 셋째주(토) 16시, 예수회센터(212호)  
 문의: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레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2월21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글라렛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레미사**

때, 곳: 12월18일(월) 11시, 글라렛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레미사 / 문의: 02)548-3623**

때, 곳: 매일 첫째주(토) 10시30분-15시, 북카페 레벤(논현) /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나눔: 이제훈 신부(성골롬반외방선교회)  
 때, 곳: 12월16일(토) 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문의: 02)953-0613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레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12월18일(월) 14시 / 집전: 구요비 주교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웅기장학회 월레미사**

때, 곳: 12월18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제: 박우준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김한석 신부 / 문의: 02)727-2525 사무국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아퀴나스합창단 성탄음악회**

Vivaldi, Magnificat & Gloria / 지휘: 최호영 신부  
 때, 곳: 12월22일(금) 19시30분, 서원동성당  
 문의: 010-6807-2704 김정규 부단장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전·진·상 여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전문심리상담: 개인상담 정서불안·우울·분노·성격 등의 어려움, 부부 및 가족상담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의사소통의 어려움·자녀문제로 인한 갈등, 스트레스 직장내 어려움 대인관계 종합심리검사 진행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모지 하늘의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유관단체 알림**

**떼제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대상: 청년, 청소년과 동반 부모 / 문의: 02)744-0840  
 때, 곳: 매일 세린채(토) 12월16일·2024년 1월20일·2월17일 16시, 햇살사목센터 성당(주최, 혜화로2길20)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2438-2377**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분야: 활동운영팀 / 업무: 청소년활동 지도  
 2024년 1월12일(금)까지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영업, 물류, 판매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i1886@catholicbook.kr) 접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사제식당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 8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성서와함께 직원 모집**

분야: 업무부 제품 관리 및 배송(한글·엑셀 가능, 운전 면허 1종 소지자) / 이메일(pen@withbible.com) 접수-제목 2023 성서와함께 입사 지원서\_지원자 이름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서류 전형 후 면접 대상자에게만 개별 연락

**성산동성당 방호원(관리인)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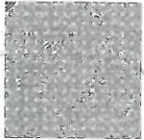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신자  
 업무: 분당시설물 관리, 미화, 영선, 기타 방호 업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분당 주민신부님 확인서  
 12월16일(토)까지 우편(우 0399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길 15 성산동성당) 및 이메일(calas55@naver.com) 접수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연락) / 이메일 문의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육아휴직 대체인력)**

대상: 세례받은 분 / 주5일(토·일 포함) 근무  
 업무: 가톨릭청년성서모임 행정, 홈페이지 담당 0명(홈페이지 및 DB 관리경력 우대)  
 근무기간: 2024년 1월1일~2025년 5월6일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분당 주민신부님 확인서(분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2월15일(금)까지 이메일(youthbible@catholic.or.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십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호준 신부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매주(토)	수도원(남양주 별내)	010-4241-1210 성소 담당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월16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시간

에파타 성가곡집  
다시, 삶

이형진 편저  
에파타 | 112쪽 | 1만3천원  
문의: 010-6379-1715([www.song4god.com](http://www.song4god.com))

한국 가톨릭 유일의, 성가대용 창작 성가곡집을 출판하는 '에파타'가 4번째 성가곡집 <다시, 삶>을 출간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에파타 활동 작곡가들의 새로운 창작곡 10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유튜브를 통한 악보 보기, 큐알(QR)코드를 통한 파트 연습 음원 플랫폼을 통한 음원 듣기도 가능하다.



🎧 디지털 앨범

가톨릭 성가  
대림

성바로팔수도회  
문의: 02)944-0895

성바로팔수도회는 디지털 앨범 '가톨릭 성가 대림'을 발매한다. 이 앨범은 바로로팔이 총 스물한 장의 CD로 발매했던 '가톨릭 성가' 전곡 음반 중 대림 시기 성가 열두 곡을 디지털 음원으로 낸 것이다. 가톨릭합창단의 노래와 명동성당 파이프 오르간의 아름다운 음색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의 기쁨을 한층 더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 앨범

가톨릭 성가  
참회, 위령

성바로팔수도회  
문의: 02)944-0895

성바로팔수도회는 디지털 앨범 '가톨릭 성가 참회, 위령'을 발매했다. 이 앨범은 바로로팔이 펴낸 '가톨릭 성가' 전곡 음반에서 참회와 위령 주제의 성가를 모아 새로 엮은 것이다. 특히 가톨릭합창단의 풍성한 합창과 명동성당 파이프 오르간의 부드러운 음색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 이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을 것이다.



📖 시간

성탄 구유 DIY

성바로팔수도회 | 5천원  
문의: 02)944-0944

주님의 성탄대축일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제작하는 구유를 직접 손으로 오리고 붙이고 꾸미는 DIY(직접 만들기) 제품으로, 나만의 구유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성탄 구유 DIY'다. 온 가족이 함께 또는 교리교육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할 수 있다.



🎵 음악극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무료 공연(좌석 예약은 미리 신청)  
문의: 02)3789-2586

서울가톨릭연극협회가 올해 마지막 공연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를 12월 28일(목) 19시· 12월 29일(금) 15시, 19시· 12월 30일(토) 15시, 19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에서 공연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톨스토이는 우리들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이 극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축제

서울시와 함께하는  
2023 동교동 문화축제

원데이 클래스: 사전 신청(참가비 있음)  
문의: 02)338-783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서울시와 함께하는 2023 동교동 문화축제'가 열린다. 생활성가로 채워지는 '연말 음악 축제, 청년작가들이 준비한' 청년작가 플리마켓,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12월 23일(토) 13시~18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만날 수 있다.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안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박진호 사도요한 보좌신부 영명축일 축하식

일시 : 12월 24일(주일) 11시 미사 후

\*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음식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 청년 대림 실천표 모임

대상 : 연희동 청년 누구나

일시 : 12월 10일(주일) 청년 미사 후 오후 7시 30분

장소 : 지하 식당

문의 : 비아 회장(010-2550-2375)

◎ 성탄 집중 판공성사

일시 : 12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교회실

\* 성사표는 각 구역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대림시기 동안의 모든 교회성사는

성탄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연성회(70대) 송년모임

일시 : 12월 14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2부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무영 요셉 총무 (010-3891-4300)

◎ 병자영성체 :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출발

◎ 주일학교 성탄제

중고등부·반대	12월 17일(주일) 오후 1시
초등부	12월 23일(토) 오후 3시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11월~12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김규리	헬레나	7-1	임채상	베드로	7-5
정혜윤	루피나	7-5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12월 24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대건회(60대) 송년모임

일시 : 12월 28일(목) 오후 7시 / 201호

\* 형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서종만 요셉 회장 (010-4248-0721)

◎ 남성 올드레아

일시 : 12월 17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 올드레아

일시 : 12월 26일(화) 오전 10시 미사 후 304호

◎ 구역활성화를 위해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 판매합니다.

일시 : 12월 30일(토) 오후 3시 ~ 31일(주일)

가격 : 떡국떡(1.8kg) 10,000원/만두(김치/고기) 15,000원

◎ 군입대 자녀 성탄선물은 12월 10일(주일)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폐자원(헌옷, 캔, 페트병, 책 등) 재활용수거함 설치 자원을 일구는 사람들(폐자원을 통한 재활용 및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무실 뒤에 재활용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은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성당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무금 책정자 변경을 12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2. 3)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33	856 (42.1%)	826 (40.6%)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3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11월 27일 ~ 12월 3일)

곽선모	오천원	송명진	이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김재관	이십만원
익명	사십육만원	이창수	일십만원
강경탁	오십만원	김은순	오만원
서복덕	오만원	김재균	오만원
조현화	오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이영자	일십만원	이지만	일십만원
정영자	일십만원	최재상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대림 제1주일)

교 무 금	23,315,000원
주일헌금	4,546,800원
국군장병및수감자를위한성탄위문금2차헌금	2,146,000원

입당	88	봉헌	212,512,215	성체	167,182,152	파견	97
----	----	----	-------------	----	-------------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주소서